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연둣빛으로 빛나는 나뭇잎들이 사랑스러운 계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땅을 갈아엎고,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주님, 잘 돌보고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위임해주신 이 세상을 이리도 망가뜨린 우리의 죄가 크웁니다. 더 잘 살겠다고, 더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는 주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귀한 생명들이 신음소리조차 없이 스러져 가는 세상입니다. 한낱 미물처럼 보여도 생명은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소망과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손길이 생명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3:5
♠ 교 독 문	26. 시편104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58. 아침 해가 돋을 때
성경봉독	I. 역상4:1-14
	II. 창1:9-13
찬 양	윤성종 집사
말 씬	I. 야베스를 도우라
	김재흥 목사
	II. 지구 사랑 로그인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08. 주와 같이 되기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이 벅찬 소명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헛된 정욕과 욕심과 작별하며 살겠습니다. 나누고 돌보고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하늘의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우리는 모두 같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4)
강사/박정자 사무총장(프렌드케어)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장혜숙 권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이인웅 권혁순 조병주 박홍재 이건화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용진 하현철 안정숙 장혜숙

젊은 설교자

뜻내기에 지나지 않는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훌륭한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거북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다. 나는 삶에 대해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사실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나는 그들에게 희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지만, 사실 그분들 대부분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게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자 어느 선량한 부인이—그분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용감했다—그런 십자가를 많이 저본 적이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그 문제에 관해서라면 내가 그분에게 혹은 회중들에게 기꺼이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은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분의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나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그때 스물 세 살이었다. 나의 나이에 대한 그분들의 반응은 겨우 스물 세 살짜리가 드러내는 성숙함과 그들이 강대상에서 기대하는 원숙한 지혜는 양립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충고가 과연 나이 든 성도들로 하여금 고개를 흔들어대지 않도록 했는지 의문이다. 처음 몇 달 간 나는 설교자 가운을 입는 게 부담스러웠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처음 가운을 입을 때 나는 마치 사제가 된 느낌이었는데, 사실 나는 사제직을 싫어한다. 나는 가운을 입는 것을 아주 단순한 관습적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운을 일종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랜 경험의 권위를 힘입어 말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교인들을 돌보는 일보다는 쉽다. 신학교에서 여선교회 모임을 지도하거나 돕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어머니가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을 돌보아주시리라 생각하니 참 기쁘다. 교회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강대상에서 혼자처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젊은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들려주는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 겨우 열 여덟 가정뿐이라는 사실이 참 좋다. 나는 그분들을 지난 6주 동안이나 심방했지만 아직도 다 만나지 못했다. 나는 교우들의 집 앞을 두 세 차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곤 하는데, 그것은 그 집에 들어갈 용기를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매번 교인들은 나를 아주 정중하게 영접해준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런 별난 소심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분들과 정말로 가까워지는 것 말고는 나의 심방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가끔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어 오후 시간에 자리를 비울 좋은 핑계거리를 찾곤 한다. 나는 과거에 서적 외관을 할 때도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오후가 되면 자존감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순전히 나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드러낼 뿐이다. 교인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는 기색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과연 존속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그러나 비록 적기는 하지만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도 있으니,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책임적이 될 것이다.

* 앞으로 이 코너에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책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을 번역하여 신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지성 한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세상에 책임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니버 목사는 23살 때인 1915년부터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베델 복음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이 글은 목회 초년병 시절의 그의 영적 고민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석)

꺾데기는 가라

꺾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데기는 가라.

꺾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곶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꺾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꺾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정완수 김재광 최숙화 김정길 배상순
박영숙 노용래 박창운 허정윤 권채영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김현영 정원석 문복순 김수연 문금석 박병구 이광섭
김종문 지명주 고숙이 이갑재 김현진 Noalgid

감사헌금:

문금석 김혜권 권혁순 김종철 송임희 김인걸 임창선 최채수 안길상
안 현 윤정화 권 순 고은숙

생일감사헌금: 김재광 구성실 김주현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최희영	송임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곽혜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김희우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이봉옥	오복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구성실	권명자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정현주	이영옥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임수연	최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김성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박혜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장애인선교주일** :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주일 헌금은 <가브리엘의 집>에 보냅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4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3. **찬양연습** : 여선교회 찬양연습이 오늘 12시 4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4.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금년도 두 번째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프렌드케어의 박정자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5. **아름다운 원로** : 덕소로 하루 나들이를 떠납니다.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6. **체육대회** : 다음 주일은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광여고 운동장에서 전 교인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특별로 점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운동화, 편한 복장, 모자, 돛자리 등)
7. **결혼** : 이해동/맹은선 씨의 결혼예식이 29일(토) 오후 1시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립니다. 축복해주십시오.
8. **신앙실천** :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생태적인 흔적을 적게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물건은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배소 속

* 헌화 : 박준희 집사 (감사합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